

보도시점 2026. 6. 17.(수) 11:00 (2026. 6. 17.(수) 석간) 배포 2026. 6. 16.(화) 14:00

## 전국 누비던 전파측정차량, 교육·연구용으로 새로운 임무 시작

- 중앙전파관리소, 내용연수 경과 전파측정시스템 무상양여로 공공자원 재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는 6월 17일 한국과학기술원 유승협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부장과 한국전파진흥협회 정홍보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형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 각 1식에 대해 무상양여하는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양여하는 차량형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은 2009년과 2010년에 15인승 미니버스를 개조하여 제작한 것으로 차량에는 지향성 안테나, 무지향성 안테나, 측정수신기, 운용PC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파측정과 방향탐지가 가능한 장비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말까지 광주 및 대전전파관리소에서 전파측정과 혼신조사에 사용해 왔으나,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기능측면에서 새로운 전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불용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측정 자원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교육 및 연구, 전파측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사용 의사를 밝혔으며, 적정성을 검토하여 무상양여하게 되었다. 한편 양수 기관은 매각 또는 재양여 등이 제한된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이번 양여를 통해 불용된 장비를 공익 목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전파 관련 교육과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는 무상양여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환경 조성  
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 밝혔다.

붙임 : 전달식 사진(별도 송부)

담당 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책임자	과 장	김경현 (02-3400-2450)
		담당자	사무관	조승호 (02-3400-2460)

